

스마트병동부터 혈당 관리까지… 제약사, 디지털 전환 가속

대웅제약, 인공지능 병상 관리 공급
동아에스티, AI 보행분석 도입
HLB, 일상 속 혈당 관리 공략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통적인 의약품 제조·판매 영역을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까지 전방위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기 보급 및 진단과 병원 내 스마트병동 구축부터 일상 속 홈케어, 만성질환 관리까지 의료 전주기를 아우르는 모습이다.

대웅제약은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서 실적 성과까지 기록하고 있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 매출은 지난해 1분기 112억원에서 2분기 124억원, 3분기 128억원, 4분기 146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는 1분기 170억원, 2분기 157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핵심 사업은 씨어스테크놀로지와의 협업한 인공지능 병상 관리 시스템 ‘쌍크’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쌍크’

/씨어스테크놀로지

공급이다. 대웅제약은 쌍크를 2026년 10월 기준 이미 전국 218개 의료기관, 누적 2만 54병상에 진출시키며 스마트병동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남부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학교병원의 7개 병동 342병상에도 추가했다. 아주대병원은 향후 110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흉부외과와 순환기내과를 시작으로 응급·간호간병통합병동까지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감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진단부터 홈케어까지 전주기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 계

열사 엠서클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웰체크’를 확산시키고, 웨이센(진단), 퍼즐에이아이(병원 효율화), 아크(홈케어) 등 각 분야 전문 기업들과 다양하게 협력하고 있다.

동아에스티도 근골격계 진단 영역 개척에 나서며 디지털 헬스케어 전략을 구체화한다. 지난 20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솔티드와 인공지능 보행분석 솔루션 ‘뉴로게이트’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뉴로게이트는 신발 착용 스마트 인soles

통해 환자의 보행 주기, 지면 접촉 시간, 압력중심 이동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간이신체기능검사를 수행하는 기술이다. 고가 장비나 넓은 공간 없이 진료실에서 손쉽게 신체 기능을 평가할 수 있어 척추·관절 수술 전후 환자 관리 및 고령자 낙상 위험·근감소증 진단에 유용하다.

동아에스티는 앞서 웨어러블 심전도 ‘하이커디’, 망막 기반 질환 예측 소프트웨어 ‘닥터눈’, 연속혈당측정기 ‘케어센스’ 등을 지속 도입해 왔다.

동아에스티 측은 “동아에스티가 보유한 종합병원과 병의원 영업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뉴로게이트 공급을 늘리고 진단, 예측, 관리로 이어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LB글로벌과 자회사 HLB라이프케어는 일상 속 웰니스 부문을 노린다. 초소형 연속혈당측정기(CGM) ‘피코링’을 필두로 혈당 관리, 식생활 관리 등을 차별화한다.

올해 3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한 피코링은

100원 동전보다 작은 크기와 각설탕 1개보다 가벼운 무게의 초소형 센서다. 15일간 1분 단위로 실시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HLB라이프케어는 인바디헬스케어와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를 전략적으로 맺고 체성분 분석 기기와 피코링의 혈당 데이터를 하나의 앱에서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HLB라이프케어는 지난달에는 식전 섭취용 ‘식전당부’와 저당 도시락 ‘밀당솔밥’을 선보였다. 혈당 측정에 그치지 않고 식생활 개선 수요를 충족한다는 복안이다.

국내 한 웰니스 브랜드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러한 공격적인 행보는 의료 현장 효율성 제고, 환자 건강 증진 솔루션 등으로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자사 영업망과 유통 네트워크로 단순 제품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술 고도화를 핵심 전략으로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광동제약 ‘AI센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AI 연구개발 전사 통합 관리
신소재 발굴·수요 예측 활용

광동제약은 사내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인 ‘AI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광동제약 AI센터는 이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계기로 그간 개별 부서의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AI 과제를 공식 연구개발(R&D) 체계 안에서 전사적으로 통합 관리하게 됐다. 이는 일회성 신기술 도입을 넘어, 전문 연구와 현장 실무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디지털 전환(DX)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AI센터는 사업 부문별 규제 대응 체계 구축, 기능성 신소재 발굴, 정밀 수요 예측 모델링을 비롯한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제조와 물류, 유통에 이르는 다양한 실무 환경에 인공지능 보조 기술을 접목하는 실용 연구를 총괄한다.



광동제약 AI센터

또한 현업 임직원들이 주도적으로 AI를 업무에 적용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술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AI크루’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다진 광동제약 생산본부 품질부문은 올해 ‘국가품질혁신 경진대회’ 경기도 지역 예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전국 분선 빅데이터·AI 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하며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아울러 광동제약은 임직원의 일상 업무 환경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인프라 개편도 병행하고 있다. 전사 협업 도구로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를 도입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제미니(Gemini)’ 활용 환경을 구축했으며, ▲사내 메일 ▲메신저 ▲화상회의 시스템 전환을 순차적으로 완료해 협업 효율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승재 광동제약 AI센터장은 “이번 AI센터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제약·식품·의료 비즈니스 전반에 AI 기반 데이터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발전하는 AI 기술과 현장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실무 적용 역량을 결합해 전사 차원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美 대형 의료기업과 공급 계약

오리지널 제치고 단독 공급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옴리클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엠포즈마’의 단독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신규 제품의 미국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이달 초 현지 대형 의료기업과 옴리클로 프리필드시린지(PFS) 제형 및 엠포즈마 전 제형(IV·SC)에 대한 단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기업은 그룹 산하에 다수의 대형 병원과 보험사,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 등을 보유하고 있어 보험 환급과 의료기관 공급을 연결할 수 있는 주요 채널이다.

두 제품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치고 단독 공급 제품으로 선정됐으며, 이달부터 제품 공급과 보험 환급 적용이 시작됐



셀트리온 ‘옴리클로’

다. 셀트리온은 보험사와 의료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대형 의료기업 네트워크에 진입하면서 미국 내 처방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옴리클로와 엠포즈마는 해당 보험사 처방집의 선호의약품(Preferrred Drug)으로 등재되고 산하 의료기관에 공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 가입자는 의료진의 처방을 거쳐 보험 혜택이 적용된 두 제품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이세경 기자

알테오젠, ADC 피하주사 전환 연구 공개

투약 편의·안전성 개선 기대

알테오젠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 ‘ESMO Congress 2026’에서 ALT-B4를 활용한 항체-약물 접합체(ADC) 치료제의 피하주사 전환 연구 결과를 담은 포스터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ADC는 암세포를 표적하는 항체에 강력한 항암 약물을 결합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도록 설계된 차세대 항암제다. 높은 치료 효과로 인해 차세대 항암제로 기대 받고 있고, 2024년 120억 달러 규모였던 관련 시장은 오는 2032년까지 570억 달러로 큰 성장이 예상된다.

다만 강력한 항암 약물을 사용하는 만큼 부작용 관리가 중요하며, 정맥주

사에 따른 투약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과제다.

알테오젠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자체 HER2 표적 ADC인 ALT-P7에 재조합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적용한 피하주사를 동물실험을 통해 약물 흡수와 내약성 및 안전성 등을 평가했다. 실험 결과, ALT-B4는 용량의존적으로 ADC의 흡수를 촉진했으며, IV 투여와 유사한 생체이용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ALT-B4를 혼합 투여했을 때 약물을 표피에서 균일하게 분산시켜 주사 부위의 피부 손상도 감소한 결과가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ADC 치료제의 전신 부작용을 줄일 가능성도 확인됐다. ADC를 IV로 투여 시 호중구(Neutrophil) 감소와 간독성이 높아지는 반면, ALT-B4와 함

께 피하주사된 결과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낮춰 혈액학적 안전성 개선 효과를 보였다. 피하로 투여한 ADC는 정맥 투여보다 최고 혈중 농도(Cmax)가 낮게 나타나, 전신 독성에서도 부작용을 줄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알테오젠은 이번 ESMO 2026에서 유럽 및 글로벌 종양학 전문가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ADC 피하주사 개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태원 알테오젠 대표이사는 “당사의 파트너사가 ALT-B4를 활용한 피하주사 제형 ADC를 임상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투약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확화를 통해 ADC 분야에서 ALT-B4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장점과 개발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이화의료원 “이상 징후 간과 말아야”

최근 극단적인 체중 감량으로 마른 체형을 좇는 이른바 ‘뼈말라’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나친 다이어트가 저체중과 영양 불균형을 유발해 젊은 여성의 뼈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26일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따르면 전문의들은 저체중이 오래 지속되거나 무월경, 월경 불순,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는 여성이라면 골다공증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고 있는 여성도 포함된다.

실제로 골량은 성장기,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 이후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젊은 시절 충분한 골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된다. 골량 형성과 유지를 위해 충분한 에너지와 다

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 이유다.

이대목동병원 내분비내과 안성희 교수는 “젊은 여성의 골밀도가 또래보다 낮게 나왔다면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넘길 일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호”라며 “젊은 여성의 뼈 건강은 체중뿐 아니라 영양 상태, 월경과 호르몬, 운동량, 기저질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다공증은 뼈 양이 줄고 미세구조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커지는 질환이다. 폐경 전 여성은 같은 연령대 평균과 비교한 ‘Z-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Z-점수가 -2.0 이하이면 ‘연령 기대치보다 낮음’으로 분류하며, 골절 병력과 월경 상태, 관련 질환 및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종합해 골다공증 여부를 판단한다.

/이청하 기자